

곡성 '글루텐프리' 가루쌀 가공기술 특허...실용화 성큼

소비자에 건강식 제공·쌀 소비 확대 동시 해결 지역 베이커리 업체와 협력...현장 활용 추진



곡성군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개발한 가루쌀 가공기술 특허 등록에 성공하며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완성한 '가루쌀을 이용한 글루텐프리 쌀크림샌드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번 특허는 밀가루 대신 가루쌀을 활용해 글루텐이 없는 쌀디저트 제품을 가공하는 기술로, 소비자들의 건강식 선호와 쌀 소비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식품시장은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며 글루텐프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밀 알레르기나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소비자뿐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글루텐프리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루쌀의 활용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가공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베이커리 제품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탄생한 글루텐프리 쌀크림 샌드는 쌀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풍미를 살리면서도 부드러운 쌀을 활용한 쌀크림을 접목해 고소함을 늘려 소비자 기호성을 높인 제품으로, 기존 밀가루 기반 디저트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특허기술은 단순한 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제조과정 전반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 안정적인 품질 유지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활용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 재배 쌀 소비 기반 확대는 물론 가공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특허 등록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베이커리 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 가공 거점시설인 '맛다곡성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해 제품 생산과 상품화에 나설 예정이다.

맛다곡성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시제품 생산과 기술 이전, 품질관리, 상품화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들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술의 상용화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단순 원물 판매를 넘어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특허를 계기로 가루쌀 활용 식품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화 가공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은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다"며 "베이커리 업체와 맛다곡성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협력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상품화함으로써 쌀 소비 촉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장흥, 정남진장흥한우 요리교실 개강

지역 대표 한우 활용 실천 메뉴 개발 교육 시작

장흥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정남진장흥한우의 소비 촉진과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남진장흥한우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요리교실은 최근 축산과 3층 실습장에서 개강했으며, 외식업 종사자와 한우 요리에 관심 있는 군민 등 2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7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3시간씩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정남진장흥한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메뉴 개발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조리 역량을 높이고, 지역 외식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메뉴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요리를 실습하며 메뉴 개발 노하우를 익히게 되며, 마지막 회차에는 교육생들이 직접 개발한 메뉴를 선보이는 시식·표평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이번 요리교실을 통해 정남진장흥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외식업체의 메뉴 경쟁력 향상과 한우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남진장흥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지역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초여름 물들인 '수국 향연' 전남 유일의 국립수목원인 구례수목원에 95품종 1만여본의 수국이 만개해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 구례수목원은 전시실에서 전람대로 이어지는 약 1km 구간의 '테마수국길'을 비롯해 외국화목원, 기후변화터마원 등 수목원 전역이 짙은 푸른빛과 보랏빛 수국으로 물들어 있다. 사진제공=구례군청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 '광양 대전환 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명우 전 삼성전자 미국 가전부문 대표 임명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사진)은 10일 성황체속관에서 민선 9기 광양시장 인선위원회인 '광양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 출범식을 갖고 한 달 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광양 대전환 위원회'는 시장 업무를 인수 인계하는 기존의 수준에서 탈피해 현재 광양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미래 10년의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경제정책 중심의 실무형 전략형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진단은 냉정하게, 비전

은 담대하게, 준비는 치밀하게'라는 운영 기조에 따라 시의 재정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민선 9기 시정 비전, 시정 방침, 핵심 공약의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지역 경제 침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구성,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운영한다.



위원장은 이명우 전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김명원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이사, 미래전략특별위원회는 도덕희 한국해양정책연합 이사장, 이정희, 홍석운, 안익준, 황승원씨가 참여한다.

박성현 시장 당선인은 "광양은 지금 산업과 도시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광양 대전환 위원회는 단순한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광양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전략 위원회이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광양의 성장 동력을 다시 세우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민선 9기 향 향만위원회 위원장, 서영현 전 포스코MC머티리얼즈 대표이사, 복지문화



장흥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정남진장흥한우의 소비 촉진과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남진장흥한우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장흥군청

고흥물, 17일까지 흥매실 예약전 운영

20% 할인·무료배송...15일부터 순차 발송

고흥물이 본격적인 여름철 매실청 준비 시기를 맞아 오는 17일까지 '울여름 매실청 준비 끝, 고흥 흥매실 예약전'을 운영한다.

이번 예약전은 고흥에서 생산된 흥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절



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순차 발송될 예정이다. 고흥물은 신선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생산 농가와 협력해 품질 관리와 배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흥물 관계자는 "이번 흥매실 예약전은 소비자에게는 제철 고흥 흥매실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흥물은 계절별 농특산물 기획전을 통해 고흥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온라인 판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물은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획전과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고흥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여수,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순항'

71억 투입 데크길·경관조명 등 편의시설 확충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해 총 2.8km 규모의 수변 데크길과 전망데크,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인수 여가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차장과 화장실 확보, 순환 산책로 조성을 위한 저수지 제방 활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수시와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천농협은 주차장 150면 개방과 화장실 1개소 신축에 협조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순환 산책로 연결에 필수적인 제방 및 진입로 시설을 사용 승인했다. 시는 진입로 가도등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현재 산책로와 안전난간 설치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해 공정을 90%를 달성했으며, 시는 올 하반기 경관조명 설치를 마무리하고 폭염 대비 그늘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



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인 상생 행정의 모습새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 전통시장 체험형 투어 시, 19일까지 참가자 모집

순천시가 전통시장의 숨은 매력을 체험하는 미시투어 프로그램 '시장 한 바퀴, 순천 맛 한가득'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장보기를 넘어 순천의 역사와 맛, 사람들의 삶이 녹아든 전통시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활기 넘치는 시장을 걸으며 대표 먹거리를 맛보고, 함께 지금되는 순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만의 넉넉한 담과 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행사는 오는 22일(아랫장)과 25일(중 앙시장)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출발한다.

신청은 19일까지 네이버폼(naver.me/5nh6dWD)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